

■ 그림 여행



마르세이유 항구
(The Port of Marseille c. 1918)

알베르 마르케
(Albert Marquet 1875 - 1947)
캔버스에 유채
상 트로페 아농시아드 미술관

오래전에 가 보았던 프랑스 남쪽 항구 도시 마르세이유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파리에서 출발해 밤새도록 달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정신 없이 자면서 가다가 열차 승무원이 깨워 주지 않았으면 마르세이유를 그대로 지나쳐 버릴 뻔했다.

마르세이유 기차역에 간신히 내렸을 때 아침 해가 완전히 떠 오르기 전이어서 안개가 자욱했던 기억은 있다.

프랑스 화가 알베르 마르케의 작품 '마르세이유 항구' 를 보면 안개 자욱한 바다 위에 마르세이유 항구가 그려져 있고 멀리 언덕 위에 마르세이유 성모대성당이 화면 꼭대기에 보인다. 전체적으로 회색이 감도는 보라색과 청색, 살구색 등으로 표현한 마르세이유 항구의 모습이 그때 그 안개 낀 아침의 기억과 비슷하다.

마르케는 야수파 대표화가 앙리 마티스의 절친이었다고 한다. 그 자신도 야수파에 속해서 활동했다. 여기서는 야수파 특유의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 대신 연한 파스텔 칼라가 화면에 가득 넘쳐 흐르는 인상과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 마르케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사랑해서 여러 점의 항구 그림을 남겼는데 유독 마르세이유 항구만 이렇게 아련하게 그렸다.

그때 마르세이유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곳의 친구들을 만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고, 언덕 위 골목을 걸어 다녔었다는 정도만 생각한다. 정말 이 그림처럼 흐릿하고 아득한데 분명히 거기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니 구름과 안개 낀 바다에 마르세이유가 몽환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이 나의 희미한 기억을 시각화 해주는 것 같아 어쩐지 묘한 연대감이 들기도 한다.

김 동백

OCEYELASH

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
속눈썹 연장 서비스



Special Offer

첫 방문시

"OCeyelash town news" 를
연급해 주시면 **\$20 할인혜택**
해드리겠습니다.

Expire date April 2023

<수강생 모집>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

- 한올 한올 정확한 1:1 시술 •
- 100% 고급 재료 사용 •
-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

상담 및 예약

714.948.0006

4128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방 하나만! 구들온돌로 바꿔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goodleusa.com

310.650.9638